

- 주요 뉴스: 미국, 美中 긴장 완화 여부는 중국 책임 투자은행은 긍정적 주가 전망 제시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가능. 무역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도 경고
 - 러시아, 5/8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와 휴전. 미국은 영구 휴전을 촉구
 - 중국 발개위,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자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정책 시행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 분위기 확산
 -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뚜렷한 이슈 부재한 가운데 저가매수 유입되며 소폭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양호한 은행 실적 발표 기대 등으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교착 상태인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1.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향후 국채발행 축소 가능성 등으로 하락
독일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전망 등으로 5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34.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7.0원, 0.4% 하락). 한국 CDS 약보합

		4/28일	4/25일	전일대비			4/28일	4/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28.8	5,525.2	+0.06%	국채 금리 10y	미국	4.21%	4.24%	-3bp
	유럽	523.19	520.45	+0.53%		독일	2.52%	2.47%	+5bp
	중국	3,288.4	3,295.1	-0.20%		영국	4.51%	4.48%	+3bp
	일본	35,840	35,706	+0.38%	CDS 5y	한국	32bp	32bp	-0bp
	한국	2,548.9	2,546.3	+0.10%		중국	61bp	61bp	-0bp
환율	달러지수	99.01	99.47	-0.46%	위험 지표	EMBI+	-	388	-
	유로화	1.1420	1.1365	+0.48%		VIX	25.15	24.84	+1.25%
	엔화	142.01	143.67	+1.17%		WTI유	62.05	63.02	-1.54%
	위안화	7.2874	7.2867	-0.01%	원자재	구리	484.1	484.0	+0.01%
	원화	1,442.6	1,436.5	-0.42%		금	3,344.0	3,319.7	+0.7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美中 긴장 완화 여부는 중국 책임. 투자은행은 긍정적 주가 전망 제시

-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美中 무역의 긴장 완화 여부는 중국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 특히 중국의 對美 수출규모는 미국의 對中 수출규모 대비 5배에 이른다고 설명. 아울러 양국이 상대방에 서로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
- 또한 현재 15~17개국과 무역협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무역협정 체결에 이르는 첫 번째 국가는 인도가 될 수 있다고 발언. 일본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
- 한편 이날 투자은행들은 미국 주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제시. JPMorgan은 빅테크의 실적 및 미국과 여타 교역국의 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Morgan Stanley도 달러화 약세가 기업 실적에 긍정적 역할을 미쳐, 미국 주가가 여타국 주가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DeutscheBank는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자산 매입이 멈췄고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미국 달러화 가치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4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35.8을 나타내, 전월(-16.3) 대비 하락하며 약 5년 만의 최저 수준. 기업들은 생산의 경우 전월비 소폭 증가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망 훼손,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매우 부정적. 특히 응답자의 60%는 관세 인상이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 공화당과 협력하여 수 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 마련을 추진

- 백악관의 해셋 국가경제위원장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28일부터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만나 수 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할 방침.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당국이 해당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IBM,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에 1500억달러 투자. 양자 컴퓨터 등에 초점

-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내에 1,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특히 이는 양자 컴퓨터와 메인 프레임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가능. 무역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도 경고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 갈로 위원과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위원은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 로이터 등에 따르면, ECB는 6월에 0.25%p의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한편 권도스 부총재는 미국발 무역 혼란으로 금융시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

■ 독일, 미국에 관세 철폐를 제안. EU에는 재정준칙 적용 예외를 요구

- 유력 차기 총리인 기독교민주당 메르츠 대표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발언. 아울러 차기 연방정부의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디지털 장관 등에 기업인을 대거 선발. 쿠키스 재무장관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이유로 자국의 예산이 EU 재정준칙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요청

■ 러시아, 5/8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와 휴전. 미국은 영구 휴전을 촉구

-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승 80주년을 맞아 5/8일 자정부터 3일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미국 백악관은 양국의 영구적 휴전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 발개위,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자신.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시행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금년 5% 전후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감 피력.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여력 확대, 정책금리 인하 등을 제시

■ 일본, 미국 재무장관의 엔화 강세 지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

- 미무라 재무관은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달러화 약세 및 엔화 강세가 바람직하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 양국 간 회의에서 환율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2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무역수지 및 JOLTs 구인건수.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양호한 주요 지표 불구 소비 둔화 및 신용 불안 신호 발신 - Financial Times

(The US economy: suspended animation)

- 최근 소매판매, 고용 및 소득 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주요 지표는 여전히 강한 경제를 시사.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 장기화를 피하고, 결국 한발 물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낙관적 시나리오가 반영
- 다만 소비자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판매량 감소와 함께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채널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또한 소비자 신용 지표에서도 불안 신호가 감지. 신용카드 발급은 작년 말 감소한 이후 정체 상태이며, 일부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확대. 이러한 상이한 모습은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

■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소비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 - WSJ

(Inflation Fear Is Making Some People Spend More—and Others Less)

- 최근 대출기관들은 1/4분기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비 증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는 이를 관세 우려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선구매 영향으로 분석. 반면 다른 기관들은 저소득 소비자의 경우 1년 전부터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고소득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 이는 소득에 따라 계층별 소비 성향이 상이함을 시사
- 델라스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을 때 저소득 가구는 내구재 소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 경기 위험(일자리 감소 등)을 인식할 경우 물가와 상관없이 소비를 축소. 한편 대체로 소비자들이 비필수 지출(여행, 외식 등)을 축소하는 가운데, 향후 소비 양극화와 선택적 소비 패턴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

■ 미국의 제조업 부활 계획, 노동력 부족인프라 미비 등의 난관에 직면 - The Economist

(The trouble with MAGA's manufacturing dream)

-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통한 기업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요구로 미국이 다시 한 번 제조업 강국이 되기를 기대. 이에 일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계획을 발표.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이 존재
- 첫째, 노동력 부족. 생산직 임금은 중국과 베트남보다 높지만 인력 확보가 어렵고, 숙련공도 부족. 둘째, 공장 건설 지연 및 노후 인프라 문제도 심각.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민 단속 강화는 관련 문제를 심화시키고 관세는 중간재 비용 증가를 유발. 이에 미국은 제조업 회귀 보다는 R&D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미국 달러화 패권, 자산시장 위험과 신뢰 위기로 지속 여부 불투명 - Financial Times**
(The spectre of dollar doomsday still looms)
 -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와 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미국 달러화와 달러화 표시 자산의 지위가 악화.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행보를 넘어서는 문제로, 미국 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 아울러 다음과 같이 논의가 필요한 근본적 이슈도 제시
 - 첫째, 미국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자산가격 상승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 둘째,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부상. 셋째, 규제완화 속 암호화폐 확산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초래
 - 무역전쟁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자산시장은 여전히 과대평가 상태이며, 관련 위험도 계속해서 증폭. 이에 더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신뢰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달러화 패권 종말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
- **미국 트럼프의 무역정책, 공정무역과 WTO 재편 의제로 변화할 가능성 - 블룸버그**
(How Trump could Champion Fair Trade — and Save the WTO)
- **미국 달러화, 글로벌 지배력 및 신뢰 악화 우려되나 실질적 대안은 부재 - 블룸버그**
(Is America Alone? Not Yet, But It's Trying)
- **미국 트럼프의 저유가 유도 계획, 글로벌 석유기업의 투자 축소로 시험대 직면 - 블룸버그**
(Trump's Desire for Cheap Crude Puts Big Oil's Plans to Test)
- **유럽계 은행 실적, 공급망 재편 수혜자금 유입 등으로 긍정적 결과 예상 - 블룸버그**
(European Banks Reach for the Silver Linings Play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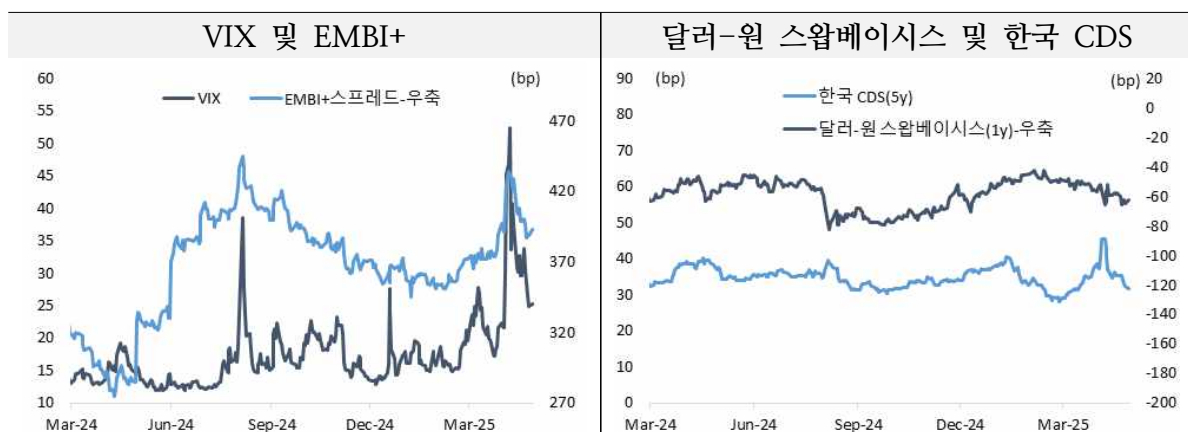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